

잇단 악재에 민주당 '사면초가'

원구성 결렬·'野 사정설' 등 막막 지도부 리더십 부재...지지도 '뚝'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서 위상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민주당이 깊은 고문에 빠졌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쇠고기 파문 정국을 주도하면서 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등 여당에 대한 공세적 입장이었으나, 상황이 돌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들어서는 '촛불 후유증'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달 일부 조사에서는 잠시 20%대 후반으로 올라섰던 당 지지도가 다시 1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과 여당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 원구성을 강행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전략적 선택을 놓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라 가족연벌 예방법 개정 없이는 원구성도 없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 파행에 따른 책임론에서 민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연주 KBS 전 사장 문제 등을 고리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지만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각종 이슈가 물리면서 대어(對與) 전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

또 병인 인허가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롯해 검찰발(發) 아권 사정

설이 돌고 있고, 원구성 협상 결렬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전략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7일 "우리가 계속 밖에서 버티며 존재감을 과시한다고 해서 국민이 박수를 보내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어디까지나 방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터닝 포인트를 모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내부 동력 극대화를 통해 극한 투쟁까지도 각오하고 단단히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전원의원직 사퇴 카드 등의 배수진을 치는 각오로 맞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대통령, 국무위원들과 산행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16일 한승수(맨오른쪽)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관, 정정걸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KBS·MBC 수사 마무리 수순

검찰, 이번 주 정 전 사장 기소...PD수첩 소환 법원에 '공'...무죄 땀 '언론탄압' 비판 불가피

새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논란을 낳았던 KBS와 MBC 등 방송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의 방송사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크게 세 갈래로 진행돼 왔다.

정연주 KBS 전 사장의 '배임' 의혹 및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왜곡 보도 의혹, 방송사 PD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중 방송사 PD들에 대한 수사는 실제로 전·현직 방송사 PD들이 연이거획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언론 탄압'이라는 명분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정연주 KBS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제청과의 소송을 포기했는지, PD수첩이 왜곡 보도

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는지에 하는 문제는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검찰은 어쨌거나 이번 주 정 전 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어서 사실상 그에 대한 수사는 끝난 것이나 다름 없다. 가능성은 적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정 전 사장에 대한 배임액수도 1천890억 원으로 확정됐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 입증에 위해 KBS와 국제청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고 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정 전 사장도 해임된 바로 다음 날 체포해 40여시간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PD수첩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제작진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애를 태웠으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의와 법원의 잇따른 결정

및 판결과 MBC의 사과방송으로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PD수첩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본 테이프의 90% 이상을 자체 복구해 구태여 내지 않는 자료를 달라고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제작진에 대한 소환조사와 처벌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8일 PD와 작가 등 제작진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한 뒤 2주일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며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배임이나 PD수첩의 명예훼손 여부는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이 판가름 나게 된다.

검찰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유죄 입증에 자신하고 있지만 만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방송사들에 대한 수사가 '언론 길들이기' 내지 '언론 탄압'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검찰, 이명박 정부 첫 '체포동의안' 요청할까

문국현 대표·김재윤 의원 영장 청구 검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제주 병원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

18일 오전 2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한 번 더 소환통보하거나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현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국현 대표가 8차 레나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체포영장·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현

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 전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법원이 법무부장관, 대통령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도 가결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제헌국회 이후 8건에 불과하며 14대 국회 때인 지난 1995년 10월 16일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3년간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KBS 감사결과' 공방 가열 민주 "졸속감사" 감사원 "문제없다"

KBS 감사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감사원의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며 KBS 감사처분 요구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반면 감사원은 "절차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17일 감사원 규칙 137조 '공공기관 감사기준'을 들어 '감사처분 요구서에 수감기관(KBS)의 변경 또는 반론을 반드시 기재' 하도록 돼

있지만 KBS 감사처분 요구서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KBS와 정연주 전 사장의 반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감사원이 담당부서를 어겨가며 졸속적으로 급하게 KBS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KBS측의 반론을 기재하지 않

았다는 지적에 대해 "수감기관의 합리적인 반론은 처분요구서에 붙여주지만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요구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반론과 비판이 잇따르면서 감사원의 정치 중립이 흔들리고 나아가 공신력 실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초등·1차(11월 2일), 2차(11월 16일)시행 / 중등·1차(11월 9일), 2차 시험(12월 14일) 시행예정

관심없는 공부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국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대모집!**

개강 9월 5일

529-0090

유·초·중등 임용고시의 모든것!

교원임용문제설명회

매주(화,금) 11시, 3시, 7시(임용가이드제공)

www.edview.net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19회시험 10월 26일, 원서접수 8월 18일 ~ 8월 27일까지 본학원에서 원서접수 대행해드립니다.

개강 9월 1일

9월 1일 ~ 9월 12일 (1단계 위임인) 9월 16일 ~ 10월 5일 (2단계 이론핵심요약정리) 10월 6일 ~ 10월 18일 (3단계 최종 점검정리)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신협(신협)에서 추천한 1등급 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08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유력한 개강이 9월 1일입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7.9급 공무원 합격 강좌

강좌직종: 행정부세원찰공정호진지무목축산

하반기 시험

개강 9월 1일(주-야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 전담: 9급 세무직 및 전문직 9월 27일 209명 모집 ● 전담: 제2회 8, 9급 기출지 9월 27일 119명 모집 ● 통합선관위: 9급 행정직 9월 27일 70명 모집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l.co.kr ☎ 222-4560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출근영남 평균 96.7점] 합격률 1위!!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개강 9월 1일

시험에 꼭! 출제되는 엄선된 문제 꼭잡게 강과!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19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합격을 위한 1차 전검정부 "적대합격반" 수강생 모집

● 개강: 9월 1일 ●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2기비정규) ● 강의일정: 9월 1일~10월 17일

● 강의장소: 본원 (매주 월, 수, 목, 오, 일) ● 학원 (매주 월, 화, 목, 야간반) ● 수강료: 200,000원 (강좌료, 문제집, 자료) ● 교수진: 탄탄한 실용교육, 학계는 산학계 교수

공인중개사 전문 www.landkor.com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합판점 ☎ 971-0002 (구)백미터 침면점 옆 광주은행 4F